

제34대 회장에 취임하면서

Being Inaugurated as the 34th President

제34대 의협 집행부는 변화와 개혁을 열망하는 8만5천 회원의 기대에 부응해 “새로운 의협”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다짐하며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암흑에 빠져있는 의료계를 구해내고 추락하고 있는 의사의 자존심을 다시 살리기 위해 의협은 새로이 탈바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에 따라 신임 집행부는

의협이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의협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국민들 사이에는 아직도 의협이 밥그릇 싸움만 하는 이기집단이라는 왜곡된 시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의사와 국민간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국민건강위원회’를 비롯한 굵직한 대국민 프로젝트들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의협이 국민에게 얼마나 필요한 단체인지 알려나갈 것입니다.



장 동 익
대한의사협회 회장

의협은 국민 건강을 위한 일이라면 가장 앞서서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얼마전 문제가 된 생동성시험 조작사태에 대해서도 의협은 누구를 비난하려는 목적이 아닌 오로지 국민건강만을 생각하며 대응했습니다. 국민에게서 신뢰와 지지를 받는 일이야말로 의사를 다시 살리는 길이고 의협의 지상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새 집행부는 출범 전부터 사이버 의료와 불법 의료를 단호히 척결할 것을 누차 강조해왔습니다. 한방, 약국, 간호, 물리치료 등 의사의 영역을 부당하게 침해해오는 준의료행위들을 엄중히 다스려나갈 방침입니다. 그러나 주변의 잘못을 책망하기 전에 우리 의사들 스스로가 먼저 모범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의협은 윤리위원회를 강화하는 등 자율정화 활동에 힘을 기울여 나가려고 합니다.

그간 의협은 정부의 의사 탄압정책에 맞서 간간히 보건복지부와 부딪혀 왔습니다. 하지만 의-정간 갈등과 다툼

은 국민건강에 피해만 줄 때가 더 많았습니다. 양자간 대립이 있더라도 무조건 투쟁하기보다는 대화로 풀어나감으로써 상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새 집행부는 대정부, 대 국회 로비활동을 강화해 정책이 수립되기 전 단계에서부터 의협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등 정치역량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여건은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고시들 때문에 의사가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진료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약이 환자에게 가장 좋을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삭감 여부를 따져야 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 의사들이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협은 잘못된 점들을 고쳐나가고 방향을 마련할 것입니다.

소신진료 여건 조성의 일환으로 의협은 회원대상 법률지원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평소 실사에서 착오청구나 과다청구까지 허위청구와 묶여서 강요 끝에 ‘자인서’를 쓰는 회원들을 볼 때마다 몹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법률사무소와 협약을 맺어 회원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회원 부담을 덜기 위해 법률지원에 드는 비용도 회장 봉급에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08년은 의협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현 의협회관을 보면 우리 의권의 현 주소, 우리의 자아상

을 보는 듯한 심정이 듭니다. 이렇게 남루한 회관으로 어떻게 100주년의 위상을 기대하며 국민건강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34대 집행부는 100억 이상의 재정이 눈앞에서 날아갈 뻔한 위기를 다행히 막아냈습니다. 계획대로 회관 부지와 건물을 매각해 500억 규모의 재정을 확보하게 되면 새 의협회관, 100주년 기념관, 의료사박물관, 노인병센터 등을 갖춘 대규모 ‘메디컬 콤플렉스’를 세워 회원들이 각종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임기를 시작한지 막 한달이 지났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도 벌써 많은 일들을 해내며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규정이 삭제되도록 했고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들려는 간호사법 제정이나 성 분명 처방, 대체조제 등도 곳곳이 막아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협 34대 집행부는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들이 진정한 의사답게 의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사의 권익을 지키는 파수꾼이자 국민건강을 지키는 수호천사가 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는 집행부만의 몫이 아닙니다. 회원들의 단결과 화합에서 나오는 하나된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애정어린 시선과 든든한 성원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